

‘대학위기 극복’ 유학생유치 다변화 빛본다

**입학정원 감축 구조개혁 속
우송대 글로벌·특성화전략 눈길
40개국서 유학생 1600여명 유치**

입학정원 감축을 골자로 한 대학 구조개혁이 다가오면서 우송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전략이 빛을 발하고 있다. ▶관련기사 3·11면

일찌감치 글로벌·특성화 전략을 내세운 우송대는 40개국 1600여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공부하는 ‘작은 지구촌’으로 불리고 있다.

28일 대학정보공시 사이트 대학알리미와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지역 대학 중 우송대가 최근 2년 간 외국인 유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송대는 2015년 대만·중국·일본 등 아시아와 네덜란드·독일·러시아·프랑스·모로코·핀란드 등 유럽, 동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에서 570명의 외국인 학생을 받아들였다.

지난해엔 국가를 더욱 다양화해 기존 국가에 폴란드·마다가스카르·우즈베키스탄·스페인·스위스에서 530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성과를 올렸다.

과거 산업대에서 일반대로 탈바꿈

한 우송대는 1년 4학기 운영으로 외국과 학기 시작 소모가 적은 덕분이다. 또 국제화를 대학의 슬로건으로 정하면서 다변화를 일찌감치 모색해왔다. 최근엔 존 엔디컷 총장의 이름을 딴 ‘엔디컷국제대학’ 개원과 프랑스 리옹의 세계적 조리학교 ‘폴 보퀴즈’ 공동학위 개설,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 등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세계적 융합인재 양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대전지역 대학들은 내년 3월로 예정된 대학 구조개혁이 다가오면서 입학정원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입학할 학생이 줄어들면서 국제교류로 세계의 학생을 국내 대학에 유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2014년 발표된 교육부의 정책연구인 ‘대학구조개혁 추진방안 연구’에 따르면 내년 대학 입학정원은 고교 졸업자 수를 초과할 전망이다. 2013학년도 고교 졸업자 수는 63만여명으로 전체 대학 입학정원인 56만여명을 크게 상회했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급기야 내년엔 고교 졸업자 수가 56만여명 아래를 하락하게 된다. 2023년 고교 졸업자 수는 40만명으로 급감해 문을 닫는 ‘한계 대학’이

속출한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5~2023학년도를 총 3주기로 나눠 대학별 입학정원 16만명을 줄이는 대학 구조개혁에 돌입했다. 이미 1주기(2015~2016학년도)를 진행해 목표(4만명)를 상회하는 4만 4000명의 입학정원을 줄였다. 이 과정에서 충청권 대학들도 학생 수를 반강제로 줄였다. 대학별 입학정원 감축은 한발대가 4%로 가장 적고 대부분 4년제 대학들이 10%를 감축했다. 등록금 수입 등 손해가 크지만 정부 재정지원이 끊기고 ‘부실 대학’으로 지정될 수 있어 입학정원을 줄여야만 했다.

대학들의 위기의 실마리를 특성화와 국제교류 활성화로 보고 있다.

국내 학생이 감소하더라도 해외 학생이 캠퍼스를 찾는다면 양질의 고등교육을 이어가는데 더할 나위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송대 관계자는 “세계적 물결인 4차 산업혁명은 글로벌 센스와 실력을 겸비한 융합 인재가 뜰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대학 구조개혁의 파고가 높지만 다국적 교수진과 유학생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형규 기자 hk@cctoday.co.kr

유학생 절반이 중국... 세계는 넓다

**대전지역 대학 5974명 재학
중 3413명 1위·베트남 2위
유학생 수 보다 국적 늘려야**

대전지역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6000명 시대를 열면서 블루오션 개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국·일본에 편중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유럽·미주 등으로 뻗어 나가야 할 ‘골든타임’이 다가오고 있다.

최근 대전시가 대학알리미 자료를 기초로 발표한 ‘대전시 대학별 외국인유학생 현황’에 따르면 19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5974명으로 이 중 중국(3413명)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비중은 중국이 가장 많고 베트남(426명), 카자흐스탄(148명), 인도네시아(141명), 파키스탄(126명), 우즈베키스탄(122명), 몽골(113명), 일본(106명), 러시아(87명), 미국(79명), 기타(1103명) 등의 순이다. 시가 조사한 외국인 유학생은 공동학위과정을 포함해 어학연수생, 교환학생까지 모두 포함한 숫자다. 외국인 유학생 숫자만 놓고 보면 중국이 월등히 많다.

하지만 대전지역을 포함한 국내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 수 늘리기보다 국가 수 증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반도 주변에선 국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한반도 4월 위기

설’로 중국·일본과 불편한 심기가 나왔다.

현재는 완화됐지만 중국에선 한류를 억제하는 한한령(限韓令)이 나왔고 대전에 온 일본인 유학생이 학기 중 본국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대전지역 대학들이 중국·일본 유학생 유치에 혈안이 되기보다 다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라는 교훈을 심었다.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한 외국인 관광객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집계한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수는 1700만명으로 2014년 1420만명보다 월등히 많다. 당시 문체부는 관광객 중 중국의 비중이 47%로 높고 일본·동남아·러시아·캐나다·미국·영국·프랑스 등 여러 국가 관광객 비율이 증가하면서 일어난 효과로 분석했다. 한국 관광의 매력적 요소가 개별 관광객으로 이어진 효과라는 게 관광업계의 설명이다.

대학가도 개별 교육과정의 실효성 제고와 외국인 교수진 확대

로 발전적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외국인 교수 확보는 공동학위과정 개설이나 세계를 호령할 국제관계학 개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전지역에서 강의 중인 외국인 교수는 390명(4년제 기준). 이중 절반가량인 47%(186명)가 우송대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 국적도 가나·남아프리카 공화국·알제리·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를 비롯해 러시아·스위스·아일랜드·영국·프랑스 등 유럽, 캐나다·미국 등 미주와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등 23개국으로 다채롭다.

대전지역 한 입시업체 관계자는 “교육이 글로벌 시대를 지향하면서 대학의 국제화 능력이 곧 경쟁력이 됐다”며 “다양한 국적의 교수들이 여러 나라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다국적 교육환경은 글로벌 인재를 꿈꾸는 학생들과 이를 뒷받침하는 부모들의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이형규 기자 hk@cctoday.co.kr

